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진안에 여아 생필품 전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이하 전북지원단)이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소년생각 KIT'를 지원받아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여아를 돕는다고 10일 밝혔다. 소년생각 KIT는 3개월 분량의 유기농 생리대와 보온 물주머니, 방수패드, 여드름패치, 탈피타민 등으로 구성, 37박스를 후원했다. 이에 전북지원단은 진안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관내 여아 37명에게 이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기농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취약계층 여아들이 겪는 심리·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해 소년생각 KIT를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현영 단장은 "진안군 취약계층 여아들에게 물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여아들의 위생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원단은 도내 28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평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호우 현장에 나타난 시민 영웅들

오경수 망성마을 통장·임낙재 옹포 의용소방대장, 승용차 구조·토사 정리 등

밤사이 기록적 폭우가 내린 익산 곳곳에서 시민 영웅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거센 비바람과 어둠을 뚫고 개인 장비까지 동원해가며 이웃을 위해 타격을 지쳤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에 삼성동 망성마을에서 RV차 한 대가 폭우 속 침수된 도로에 고립됐다.

당시 시간당 7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인근 하천이 범람했고, 이로 인해 해당 도로 일부 구간에 물이 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는 그대로 멈춰 서버린 차를 움직이지 못해 언제 울지 모르는 견인자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칠곡 같은 새벽 어둠을 가르고 한 남성이 무릎까지 물이 찬 도로를 침범침범 걸어들어왔다.

다음 아닌 망성마을의 슈퍼맨으로 통하는 오경수 통장이었다. 오 통장은 많은 비가 쏟아지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동네 곳곳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내 마을은 내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에서다.

오 통장은 주저 없이 고립된 차에 다가가 단단히 끈을 묶었고, 자신의 트랙터를 이용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오 통장은 도로 배수가 이뤄질 때까지 교통을 통제하는 등 공무원을 도와 복구 작업에 큰 힘을 보탰다.



보냈다

이 마을에 오래 살아온 오 통장은 폭우로 인해 도로 위로 쓰러진 나무를 직접 톱으로 잘라 치우는 등 동네 주민들을 위해 복구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오경수 통장은 "우리 동네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수된 도로로 바로 달려갔고 위험하다고 생각해 도로를 통제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우영 삼성동장은 "폭우와 어둠을 뚫고 차량 구조작업을 도와주신 오경수 통장님의 선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호우 피해 상황이 빨리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대 김인수 명예교수, 발전기금 4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김인수 명예교수(수학과)가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발전기금 4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10일 오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김인수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정년퇴임 시 후학 양성에 써달라며 6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 기금은 김 교수 아버지 호인(重仁) 장학금으로 명명돼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올해는 김 교수의 둘째 자녀인 김용은 동문(전자공학 97학번,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돼 받은 상금 3천만 원과, 정년 10년을 맞아 받은 1천만 원을 더해 기부했다. 이로써 김 교수가 현재까지 기부한 기부금은 총 1억 원에 달한다.

김 교수가 기부한 발전기금은 중산(김인수) 지정기금 및 교수회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인수 명예교수는 "우리대학 명예교수들이 대학 기부 등을 통해 마지막 보람을 찾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대학 명예교수회가 주도해 발전기금 기부자를 발굴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도동동 지사협, 착한가게 16호점 현판식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 서덕교)는 10일 관내 동문쭈꾸미(대표 박종희)에서 착한가게 16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일 매출의 일정액 (월 3만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착한가게를 통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종희 대표는 "착한가게 지정에 힘입어 더욱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도동동장은 "착한가게를 통하여 도동동의 든든한 후원자로 동참하여 주신 결정에 감사드리며, 후원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곳부터 가치있게 나누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 백종일 은행장,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공희용 선수 선전 기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024 파리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전북은행 배드민턴팀 소속 공희용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지난 9일 전북은행 3분기 경영전략회의에 앞서 진행된 격려금 전달식에는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및 부·지점장들이 함께 지리해 공희용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축하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공희용 선수는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신 소속팀 전북은행에 감사하다"면서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희용 선수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김소영(인천국제공항)선수와 복식팀을 이뤄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을 거머쥔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메달 사냥에 나선다.

백종일 은행장은 공희용 선수의 우승기원과 함께 준비기



간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파리의 무더위가 격정이지만 공희용 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북은행 직원 모두 힘껏 응원할 것"이라며, "특히 부상 없이 이번 대회를 잘 마무리해 달라"고 특별히 격려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에 시원한 쿨키트 70상자 전달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0일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쿨키트 70상자(300만원 상당)를 군산시에 전달했다.

2024 시원(COOL)키트 나눔사업은 전북은행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질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쿨키트는 여름이불, 쿨매트, 선풍기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탁된 상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더위에 취약하신 복지 어르신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전산익 부행장은 "폭염으로 유난히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항로기업인 전북은행이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혹서기 군산시민들을 위해 시원한 쿨키트 후원품들로 뜻깊은 나눔을 펼쳐 주시는 전북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취약한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김제 황산면, 두월천 해바라기 꽃씨 파종

김제시 황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0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구종식) 위원 20여명이 참여해 폭우에도 우비를 착용하면서 두월천 해바라기꽃씨 파종을 위해 꽃씨를 파종하는 열정을 보였다고 밝혔다.

두월천 해바라기꽃씨파종사업은 "살기좋은 우리동네 황산"을 만들고자 회원들의 머리를 맞대어 함께 구상하여 만들어낸 특색사업이다.

맨 앞줄은 코스모스, 가운데에는 중간 크기로 자라는 해바라기 맨 뒷줄에는 큰 키로 자라는 모종을 각각 심어 두월천 도로변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어우러지는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산면 중명마을에서 의곡마을까지 500여미터의 구간에 해당한다.

구종식 주민자치위원장은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파종작업에 임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님들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런 노력에 부합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써 주민자치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석대, 계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0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계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학회 수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1학기 계암장학회 장학금으로 선발된 수혜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박 총장은 고인이 된 장길남 이사장과 장진영 영화배우의 유업사업을 소개한 뒤 김민주(소방방재학과 3년) 학생의 4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노준 총장은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싶다는 고인들의 뜻을 깊이 새겨 지역과 국가를 빛내는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매년 장길남 이사장과 장진영 영화배우의 기일인 5월과 9월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에 자리한 장진영 기념관과 계암장학회를 찾아 묘소



참배와 헌화, 기념관 정비,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장수군지부, 'NH초록세상 제13호' 조성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는 지난 9일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에 위치한 한우리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영자)에서 'NH초록세상 제13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오 농협은행 장수군지부장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스칸다리아모스와 자작나무로 만든 식물벽(Plant Wall)을 전달했다.

'NH초록세상'은 가습 및 제습기능이 뛰어난 천연 이끼식물벽을 조성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청소년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ESG사회공헌 활동이며, 식물벽 조성과 별도로 한우리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센터 내 게시판 제작 및 책장을 기부하여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준오 지부장은 "이번에 조성한 녹색공간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보탬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수=곽노태 기자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 한부모 가정 사랑의 쌀 후원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회장 김문옥)는 10일 관내 한 부모 78가정에 쌀 100포(1포 10kg)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에 익명의 기부 천사가 지난 7월 1일 쌀 10kg 100포를 후원함에 따라 진행됐다.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는 진안읍행정복지센터 등 11개 읍·면 새마을 회원을 통해 직접 후원 대상자들에게 백미를 보낼 예정이다.

김문옥 회장은 "사랑의 쌀을 기부해 주신 익명의 기부 천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후원을 주신 쌀로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는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건 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LG전자 김제점, 취약계층 지원 선풍기 100대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0일 LG전자베스트샵 김제점 김민호 대표가 복지 어르신의 무더위 해소를 위해 써달라며 선풍기 100대(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민호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선풍기 100대 기부사업이 올해 6번째가 되었다"며, "어르신들이 혹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부받은 선풍기는 김제시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생활지원사들이 폭염에 취약한 복지노년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매년 더위 취약 대상자 지원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시에서도 혹서기에 더위로 힘들어하실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주천면, 재해 안전 생존 가방 지원

남원시 주천면(면장 김재하)은 산간지역 주민들의 재해에 대한 안전을 위해 생존 가방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천면은 지리산의 초입에 위치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산악 지대가 많고 깊은 계곡과 하천에 인접해 있어 자연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며, 이번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극심한 호우가 우려되는 가운데 산사태 등에 대비하고 구조사까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면 자체 자구책으로, 이번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20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면 행정복지센터가 평소 1일 1가구 의무 방문을 통해 재난에 대한 주민 인의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강구하고 있는 반증이다.

한편 김재하 면장은 "앞으로도 남녀의용소방대, 사회보장 협의회 등과 복지안전을 위한 주민 조직을 강화해 재난 취약지구 주민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